

發 刊 辭

행술 李泰魯 教授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停年을 맞이하셨음을 경하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의 재정이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1950년대에 이미 세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세법학의 길을 개척하신 李泰魯 教授께서는 30余星霜을 학자로서, 교수로서, 국세심판소의 심판관으로서 세제법제의 합리화와 민주화에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한국국제재정협회를 창설하여 국제조세법학 및 국제조세행정의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李교수님은 온화하고 원만한 性品으로 後學·後輩교수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오셨고,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後學들을 보살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무부처장을 역임하시면서 서울대학교의 발전에도 이바지하셨습니다.

우리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법학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교수님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뜻에서 이번에 발간되는 法學 제38권 2호를 李교수님의 停年紀念號로 봉정합니다.

이 정년기념호의 발간을 위하여 우리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원들께서 법학 각 분야의 논문 6편과 서평 등 다양한 연구성과물들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玉稿를 보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술 李泰魯 선생님의 건강과 家庭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1997년 9월 30일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長
梁 承 圭